

지역 소식통

부안군, 추석명절 청결 종합대책 추진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2022년 추석맞이 청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연휴기간 동안 추석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점검,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중점 수거,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통한 청결상태 유지, 쓰레기 처리상황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추석명절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청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마무리 대청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거리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협조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공동주택 안전 대전환 집중점검 실시

부안군은 지난 31일부터 주민 생활 밀접시설인 공동주택 하이라이프의 2개소에 대하여 2022년 안전대전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31일 날 실시한 집중점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김중택 부군수가 직접 참여해 소방시설 등 분야별 점검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공동주택은 화재 등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합동반 구성을 통해 입체적인 점검을 시행했다.

군은 집중점검 기간 내에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에서 시행하는 점검 외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세대별 가정용 자율점검포도 배부하고 있다.

김중택 부군수는 "공동주택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 생활 밀접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힌남노' 대비 총력 대응

심덕섭 고창군수, 비상대책회의 주제... 우려시설 사전 점검·안전조치 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조치하고, 후보고 하라"

고창군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단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5일 오전 군청2층 종합상황실에서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태풍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사항을 재점검했다.

심 군수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군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 '힌남노'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선조치가 중요하다"며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공무원 투입 등 과감한 사전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급경사지, 배수문 하천진입로, 하수도 유입구, 옥외광고 게시대, 교통 안전시설물, 저수지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 점검해 태풍대비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창군은 소형어선 육지 인양·중형어선 피항조치, 해안가 저지대 모래주머니 차단막 설치 등을 완료했다.

또 파일 등 농작물이 수확시기에 접어들어 따라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 시설을 보강토록 지시했다.

심덕섭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매우 강한 수준의 태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하겠다"며 "군민들도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침수우려 도로 등 위험지역 통제 등이 있을 경우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대책회의 모습

다"고 강조했다.

군은 급경사지, 배수문 하천진입로, 하수도 유입구, 옥외광고 게시대, 교통 안전시설물, 저수지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 점검해 태풍대비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창군은 소형어선 육지 인양·중형어선 피항조치, 해안가 저지대 모래주머니 차단막 설치 등을 완료했다.

또 파일 등 농작물이 수확시기에 접어들어 따라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 시설을 보강토록 지시했다.

심덕섭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매우 강한 수준의 태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하겠다"며 "군민들도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침수우려 도로 등 위험지역 통제 등이 있을 경우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풍 '힌남노' 총력대응 만반의 대응 태세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 주제... 추석 명절 방역·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제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힌남노가 우리나라로 북상 중인 가운데 정읍은 5일~7일 사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종 사업장과 위험지역,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리, 우·오수관과 맨홀 긴급 점검, 긴급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조치 매뉴얼(manual) 점검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읍·면·동장과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와 가축 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과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시로 예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간판과 현수막 등 낙하 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와 배수펌프 가동 등을 점검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폐기물 배출일을 알리고, 기동 청소차와 읍·면·동별 경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

특히 읍·면·동장과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와 가축 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과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시로 예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간판과 현수막 등 낙하 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와 배수펌프 가동 등을 점검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폐기물 배출일을 알리고, 기동 청소차와 읍·면·동별 경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정읍시,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중심의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추석 및 출성으로 보완·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귀성객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대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진료 기관 1개소와 당직 의료기관 24개소, 보건소 및 진료소 41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9개소 등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연휴 기간 중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읍시청 당직실과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서비스 안내 시스템(www.e-gn.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추모공원의 봉안당은 동시 출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높아진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 중소기업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 요원을 특별 배치하며, 5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시설물과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도시공원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과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귀성객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대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진료 기관 1개소와 당직 의료기관 24개소, 보건소 및 진료소 41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9개소 등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연휴 기간 중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읍시청 당직실과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서비스 안내 시스템(www.e-gn.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추모공원의 봉안당은 동시 출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높아진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 중소기업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 요원을 특별 배치하며, 5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시설물과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도시공원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과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추석 맞이 시설·단체 위문 나서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46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724개소와 저소득층·저소득 한부모가족 487세대, 위기 가구 180세대 등이다.

시는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총위소득 100% 이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골고루 지원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이학수 시장은 5일 내장상동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 나눔발과 시기동 소재 애육원을 방문해 백미·치약·세제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 시설 장애인들의 건강을 기원하



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으로 장애인과 이들을 보살피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했다.

이와 별개로 정읍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읍·면·동장 등 공직자들도 직접 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공직자들은 5일부터 8일까지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